

“언론인 불자연합회 결성” 한목소리

마곡사 연수회 참가자 필요성 제기 법사 확보 쉽고 불교외교 역할기대

다른 직종 불자회들과 달리 회원들의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연합회 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언론인 불자들 사이에 연합회 결성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3일 마곡사에서 조계종 포교원 주도로 열린 '불자 방송 언론인 연수'에 참가한 언론인 불자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

연합회 추진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거론돼 왔었지만 20여개 중앙 언론사 가운데 KBS, MBC, SBS, 경향신문 등 4곳에만 불자회가 있는 실정이라 연합회 결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96년 첫 불자 방송 언론인 연수에서 연합회를 결성했었지만 각 불자회가 결성 초기인데다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몇달만에 흐지부지 사라져 버린 일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더 튼튼하게 기초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언론인 불자연합회가 결성되면 지속적인 법외 포교를 통해 불자 언론인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언론사 불자회들의 고충인 법사 초빙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연합회회를 통해 합으로 제도법사를 수월하게 모실 수 있

을 뿐 아니라 인원이 적어 법사 요청이 어려웠던 문제들도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 또한 연합 수련회를 통해 평소 접할 수 없는 발우공양 등 생활생활을 경험하고 수련을 점검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교계에서 기대하는 점은 언론매체에서 불교외교이나 종교평화문제 발생할 경우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교외교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장은 “불자 언론인들이 교류와 활동을 강화할 때 불교포교는 물론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언론인 불자연합회 결성을 촉구 하고 있다.

연합회 성격은 아니지만 신문·방송사에 근무하는 불자 언론인들이 실행활동을 위해 98년 5월에 결성한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가 있다. 아직 이렇다할 대외적인 활동은 펼치지 못한채 친목도모와 실행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 PD 외에 총무부 등 사무직 직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언론사 불자회와는 다르게 구성된 만큼 나름대로 차별화된 활



불자 언론인들은 3~4일 마곡사에서 발우공양 등 1일 사찰체계에 도전했다.

동일 요구된다.

강신철 한국불교언론인회 부회장(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은 “한국불교언론인회의 지부들 각 언론사별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불교언론인회와 각 언론사 불자회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신교나 가톨릭도 언론인회가 있는데 특히 가톨릭의 경우 가톨릭방송연합회가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신교는 기독교 언론인클럽과 기독교언론인협의회의 등이 결성

인터넷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정 홍 회 (부산 보현의 집 간사)

노숙자 캠프의 아침은 인터넷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떠들석한 인사와 아침 배식으로 시작된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8시가 되어야 출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설현장에 노무자로 일하기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삼삼오오 팀을 만들어 용역회사로 출근을 한다.

한바탕 소란 같은 새벽이 지나 가면, 당직을 서고 일어난 아침이라 간단하게 몸을 풀고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기도를 한다.

나는 부처님 법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부모님 은혜 보답하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 행복하길 바란다. 성불하길 바란다. 108배를 마치고 벽을 마주하고 명상에 잠긴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려 보현의 집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마주하며 행복의 꽃밭에 그들을 쉬게 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실직 노숙자 캠프 부산

처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혀놓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으며 슬취한 사람을 진정시킨다. 손을 꼭 쥐고 몇시간을 황실수술하는 얘기를 듣고 난 후 손을 깨 해서 속으로 모시고 와서 잠을 재운다. 이런날은 유난히 이분들의 외로움이 서늘하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 겸연쩍어 하는 사람에게 다가와 “김선생님 술 먹은 뒤같이 상쾌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다시는 슬며시 않겠다고



해 캠프에는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며, 마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직장법회 활성화방안 찾는다

조계종 7월8-9일 지도자대회

전국의 직장 직능 불교신원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직장 직능 신원단체 활성화를 위해 직장 직능 신원단체 지도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7월8일부터 9일까지 충북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에서 열리는 이번 지도자 대회는 직장 직능 신원단체 대표자 상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해 종교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또 동일 직종간 연합조직의 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

클릭! 새 홈페이지

- 도선사불교학학회(http://cafe.daum.net/dobulhak)-5월24일 개설. 도선사불교학학회 선배들의 만남의 장소.
- 손수반이(http://cafe.daum.net/manhaing)-5월28일 개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같이 연구하는 모임.
- 충청연불(http://cafe.daum.net/ccyb)-5월20일 개설. 충북의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사이버 공간.
- 최경성의 날마다 좋은날(http://cksno1.itycity.com)-불교입문, 산사 가는 길, 경전산책, 시 한수 차관간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사찰예법, 발우공양법, 부처님의 생애와

주제는 '직장 직능법회 활성화 및 조직화'. 우선 직장 직능법회 모범사례를 듣고 법회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명사초청 강연, 법주사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포교원에서는 직장 직능 신원단체 대표자 및 임원 외에도 전국단위 조직의 경우 지부 지회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직장 직능신원단체 대표들은 7월1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

이번 지도자 대회에는 금오산 불자회,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불자회, 공무원 불자회, KBS MBC 등 방송 언론 불자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02) 720-7060

교훈 등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 신대기 홈(http://members.tripod.lycos.co.kr/padma)-불교의 우주관, 인도의 까비르 소개, 총림과 청구에서 찾아보는 수행문화, 선적해탈과 전위예술, 태극 사찰 순례, 사찰 건축과 불교 사상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 부산대 불교정진회(http://myhome.dreamx.net/chang97)-부산대 불교정진회의 홈페이지. 나눔일기장, 정토회 소식 등을 알 수 있다.
- 보타원(http://cafe.daum.net/botawon)-5월30일 개설. 부산 서대신동에 위치한 보타원에 다니는 학생회 모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천불동 대구서 전국모임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24~25일 대구 구도회 법당에서 전국모임을 갖는다. 이번 전국모임에서는 박태원 교수(울산대)를 초빙해 '천태불교사상'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25일에는 새벽예불과 함께 정진의 시간을 갖고 칠곡 송림사의 5층전탑, 기성동 3층석탑, 가산산성, 군위삼존석굴 등으로 성지순례 일정도 잡혀 있다.

감사원불자회 성지순례

감사원 불자회(회장 남정수)가 10~11일 수덕사, 개심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불자회회원들은 최근 개인한 수덕사 성보박물관에서 불교문화재를 보며 살아있는 불교문화의 현장을 답사하고, 주지 법장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감사원 불자회의 성지순례에는 농림부, 공정거래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과관정부중앙청사에 동지를 불고 있는 정부부처 불자회들이 동참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다정산악회 속리산 등반

수원포교당 거사회 옥야지역모임(지역장 정영환)은 12일 충북 황간 반야사에서 6일 산행법회를 개최했다. 다정산악회는 25일 충북 보은 속

리산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 (0331)245-9670

청주 MBC 불자회 창립

청주MBC에 불자회가 창립됐다. 5월30일 창립모임을 가진 청주MBC 불자회는 현재 15명의 회원이 불교신행 활동을 다짐했다. 창립모임에서는 합영배 방송제작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청주MBC 불자회는 매달 사찰 성지순례와 두달에 한번 전국MBC 불자회 연합 사찰순례법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0431) 229-7250

네띠앙 서경·충청지역모임

네띠앙불교동호회 서울경기지역 모임인 서경모임(지역사장 김용기)은 3일 수미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서경모임은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정기법회 및 월례모임을 갖는다. 대전충청지역 모임(지역사장 나민균)도 이날 대전 용화사에서 정기법회를 가졌다.

하북동 충청모임 법회경공부

하이텔 불교동호회 충청법회는 7일 월례법회를 갖고 <법화경> 공부에 들어갔다. 충청법회에서는 <법화경> 제목 해제를 거쳐 본격적으로 <법화경>을 공부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에서는 지리산 제다사승을 통해 얻은 햇차 시음회도 가졌다.

4형 비워 마음의 평화 얻자

을 거두어 부처님의 자비실천 사상으로 속식을 제공하고 마음을 쉬게 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보현의 집에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숫자 만큼이나 함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거처했다. 소설 속 얘기 같은 절망적인 사연을 상담하면서 그 깊은 상처를 보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교류하고 분노를 조절한다. 마음과 몸을 추스린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근처 사찰 법회에도 다니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 착실하게 일도 다닌다.

그런데 한달동안 일도 잘하고 술도 안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고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오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한 손에 오징어, 다른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서 “총무님 합쳐주세요. 미누라와 애들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하며 사무실을 한바탕 휘젓고 돌아오는 공간이가 때문에 슬취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근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아지 못한다. 하지만 자립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다 세상 속에서의 수행을 택해 살아 가는 참맛을 알게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었겠는가. 또한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임없이 비워써 참으로 평화로운 주인공에게 맡기는 공부를 몰랐더라면 이 공간에 융화될 수 있었겠는가.

남들이 떠들석한 주말을 좋아하듯 나도 휴일엔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하루쯤 여행도 떠나고 싶다. 어떤 날은 돌아오지 않는 길을 출렁히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뽀끼에 그렇다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는다. 슬취한 내 심정은 밤 먹고 온갖 난리를 피우는 이놈이 뭐길래 이래 들었다 놓았다 하는지 환장할 노릇이다. 내 평화로운 주인공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여정에서, 내 일터는 나를 비워내는 수행처가 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계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성립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사상·경토사상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최봉수(동국대학교)·주명철(동국대학교)·정병조(동국대학교)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학부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박종(동산불교대학)·김성철(동국대학교)·권만준(동국대학교)·보각스님(승가대학교)·김기홍(동국대학교)·최홍식(동국대학교)·윤원수(문화재단연구원)·홍석스님(승가대학교)·한정석(금강선원이사장)·김조기(동국대학교)·유진스님(동국대학교)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원서진 3매	2000년 6월 15일~ 2000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2000년 8월 5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중로구 건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상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한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사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음식품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 어머니의 땃통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은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만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고통과 놀랐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강영희)

매달되는 증상() 미심시요.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대 냄새가 끈기 띠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